

흥미진진 공주

2026.04

Vol. 373



흥미진진 독자 솜씨 자랑

정성껏 색칠한 그림과 독자 여러분들의 **봄나들이 추억**을 소개합니다.

※ 보내주신 색칠 사진과 이야기는 편집을 거쳐 재구성했습니다.

독자 **이채현** 공주시



신입생 시절 친구들과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교정에서 돛자리를 펴고 놀았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공주에서 보내는 봄은 앞으로도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겠죠? 대학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봄의 향수일 테니까요♡

독자 **변예진** 공주시



퇴직한 남편과 공주에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네요. 벚꽃은 피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바람에 하늘하늘 흩날릴 때 더욱 눈부신 듯합니다. 색칠을 하며 모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했습니다^_^

독자 **강의련** 공주시



2008년 봄, 손자의 손을 잡고 유구에서 버스를 타고 국립공주박물관을 구경하고 투호 놀이를 했던 봄나들이가 떠오릅니다. 차편이 없어 걸어오던 길에 터미널 앞에서 사 먹었던 붕어빵이 어찌나 맛있던지, 봄날이면 그 따뜻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독자 **권선희** 공주시



지난해봄 가족들과 석장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마침 초등학교 딸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배우는 중이라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만약 공주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한다면, 석장리박물관을 강력 추천합니다!

공주말 **학력고사** 3월호 정답지

Q. 다음 중 '느글거린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빈정거린다.

Q. 다음 중 '무덕스럽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행동이 투박하고 거칠다.

정답자 명단

정 수 *	XU HAIFA *
오 비 *	박 윤 *
신 보 *	유 지 *
심 대 *	권 순 *
전 정 *	조 유 *

※ 응모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2026 APRIL
VOL. **373**

공주를

04

TRACK 01

공주 핫이슈

농촌 골목 어귀
다시 찾아온 반가운 만물트럭

08

TRACK 02

공주 핫스팟

당신의 하루가 예술이 되는 공간
'백제문화전당'

12

TRACK 03

공주 코믹스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3장. 무령의 꿈
14화 백제 25대 임금이 되어

공주답게

14

공주 그래픽

벗꽃으로 물든
공주의 풍경

16

공주 지킴이

가위 소리가 머무는 동네 사랑방
'현 미용실'

18

제철 레시피

봄 향기 가득, 바삭한 즐거움
'두릅튀김과 알밤묵볶이'

20

공주 취향일기

영어로 잇는 진심,
수요일 밤의 영어 동아리 'JES'

소중히

22

공주 서포터즈

24

공주 알림

26

시민 기자

28

의회 소식

기록합니다

30

조선, 그림을 읽다

새봄, 생명의 시작을 알리다
'화조도'

32

문화 캘린더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34

기부 소식

35

영화 속 공주

'왕과 사는 남자'
그 이야기의 흔적을 공주에서 만나다

36

공주말 학력고사/

이달의 색칠 공주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편집위원 윤용혁 황교수 유환권 양진모



흥미진진공주 통권 373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비문해자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84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1899-0088 | 041-840-3800

농촌 골목 어귀 다시 찾아온 반가운 만물트럭

예전 농촌 마을에는 특별한 트럭이 찾아오곤 했다. 트럭이 골목 어귀에 들어서면 주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나둘 나와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안부를 나누며 작은 장터를 이뤘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공주시 이동형 편의점은 그 정겨운 장면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장 보기가 어려운 농촌 마을로 찾아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일자리까지 만들어낸다. 마을을 향해 달리는 편의점, 그 따스한 동행의 현장을 들여다봤다.



공주시 이동형 편의점

공주시니어클럽은 공주시에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문의 : 공주시니어클럽 041-854-1089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이동형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공주시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 한참을 걸어야 하는 ‘식품 사막’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장보기는 일상의 큰 숙제죠. 그래서 ‘물건이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이 물건을 찾아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이동형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자리 모델을 결합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활력을 얻는 통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동형 편의점은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나요?

기존 일자리가 환경 정비나 시설 관리 같은 봉사 중심이었다면, 이동형 편의점은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시장형 일자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BGF리테일, 그리고 공주시니어클럽이 손을 맞잡고 운영하는 민관협력의 결과물이죠. 어르신들은 이동형 차량을 타고 상점이 부족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간식과 생필품을 판매합니다. 고정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 2명의 어르신이 차량에 탑승하고 공주시니어클럽 직원 4명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외에도 공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이 무려 34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약 2,102명의 어르신이 34개 사업단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마음든든케어’나 저수지를 지키는 공익 활동부터 무연고 장례를 동행하거나 시니어 보조기기를 관리·세척하는 ‘시니어 보조기기관리지원 서비스’, 소규모 취약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등 전문적인 일자리까지 분야가 무척 다양합니다. 특히 ‘마곡카페’나 ‘청춘피자’, ‘청춘초밥’처럼 어르신들이 공동체 사업단을 꾸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우리 지역의 활기찬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로서 가장 깊게 고민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형 편의점은 정해진 장소가 없기에 수요가 일정치 않을까 봐 걱정이 컸거든요. 만약 방문 시간이나 장소가 엇갈려 판매가 저조해지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칫 보람을 느끼지 못하실까 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도움이 절실한 동네가 어디인지 찾아내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이라는 유통 방식이 공주시 농촌 지역의 '식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나요?

공주는 농촌 지역이 넓고 마을이 흩어져 있어 소규모 슈퍼마켓조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차가 없으면 마트 구경조차 힘든 어르신들에게 '이동형'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연결'을 뜻합니다. 유통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돕는 복지의 실현이자,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히는 따뜻한 이동 수단인 셈이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 측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끝까지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다면요?

우선 주변 골목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말 상점이 없는 '진짜 필요한 곳'만 찾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자부심입니다. 구매자였던 어르신이 판매자가 되어 동년배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당당한 미소에서 노인 일자리의 진정한 가치를 봅니다. 일자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힘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편의점은 비싸지 않냐"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1+1 행사나 마트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물품을 보며 금세 아이처럼 즐거워하시더군요. 특히 휴지나 세제 같은 무거운 짐을 집 앞까지 배달해 드리는 정성에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실 때 가장 몽클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공주시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 이동형 편의점이 찾아가간 마을

- 1월 22일 계룡면 하대리
- 1월 23일 계룡면 중장리
- 1월 27일 사곡면 화월리
- 2월 4~8일 겨울공주군밤축제 행사장
- 2월 26일 유구읍 명곡리
- 3월 10일 신평면 조평리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3시

운영 현황

① 농촌 거주 시민 및 이장님과의 협의를 통한 수요 조사 실시 → ② 대상 지역의 식품 사각지대 여부 파악 → ③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 일정 조율

운영 시간

공주시니어클럽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공주시니어클럽 전막길 15-6
041-854-1089



달리는 편의점,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생 2막의 즐거움



양희석 (72세)

오늘도 출근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제가 정성껏 진열한 물건을
손님들이 기분 좋게
사 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말로 다 못 할 뿌듯함을 느낍니다.

트럭에 설렘을 싣고 달리는 '베테랑 멘토'

올해 일흔둘을 맞이한 양희석 어르신에게 '아침 출근'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이자 일상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직장인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온 그에게, 은퇴 후 마주한 3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은 적적함을 남겼다. "놀다 보니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는 양희석 어르신은 도시 잡은 일터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뜨거운 활력을 얻는 중이다.

평소 정리정돈이 몸에 밴 성격 덕분에 편의점 선반 위에 물건을 오차 없이 줄 세우는 일조차 그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된다. 이제 그는 CU 마곡편의점 4호점의 살림꾼을 넘어, 업무가 낯선 신규 어르신들을 세심히 이끄는 '헬퍼 서비스'이자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시니어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이동형 편의점 트럭을 몰고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마중 나온 주민들의 환한 얼굴에 가슴이 먼저 벅차오른다. 서툰 포스기 조작을 묵묵히 기다려주며 "천천히 하셔도 된다"며 다독여주는 공주 시민들의 넉넉한 인심은 그를 다시금 힘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함영화 (71세)

내일은 또 어떤 분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밤잠을 설치며 손님 맛을 준비를 하는
지금이야 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봄날입니다.

낯선 귀농지에서 찾은 '보람찬 인생 2막'

평생을 가족을 위해 전업주부로 지내온 함영화 어르신은 은퇴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공주를 택했다.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풍경에 반해 내려온 귀농 길이었지만, 처음에는 연고가 없는 도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 그런 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주라는 도시를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해준 다정한 초대장이 되어 주었다.

작년까지 '마곡커피 3호점'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였던 그는 지난달 CU 마곡편의점 4호점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제 막 한 달 차가 된 따끈따끈한 새내기로서 활기찬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아직은 모든 업무가 서툴고 낯설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될까"하는 설렘에 출근 전날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다.

특히 이동형 편의점 트럭 안을 신기한 듯 구경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면, 골목마다 정겨운 경적 소리를 울리던 옛 '만물 트럭'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몽클해진다. 대형마트가 멀어 장보기도 여의치 않았던 이웃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든든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은 그가 공주시민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자부심이다.

주민들이 꼽은 이동형 편의점 인기 상품 BEST 3

1등_ 휴지

부피가 커서 혼자 들고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집 앞으로 배달도 해주니까 이보다 편할 수가 없네요.



2위



1위



3위

2등_ 주방세제

세제 하나 사러 마트 가기에는 너무 멀고 난감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한두 개씩 바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3등_ 음료수

늘 먹던 것만 마시다 보니 음료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편의점이 올 때면 오늘은 뭘 마실지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백제의 숨결
당신의 하루가 예술이 되는 공간

‘백제문화전당’



『고마곰과 공주가 전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예요.
앞으로도 공주시의 새로운 명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 이 코너는 ‘고마곰과 공주’의 안내와 함께합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고결한 숨결이 흐르는 도시 공주. 이 역사적인 풍경 한복판에 백제의 문화를 현대적인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들어섰다. 그동안 축제라는 짧은 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옛 왕도의 이야기는 이제 언제든지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상설 문화 공간으로 우리를 반긴다. 살아있는 공연과 미디어아트, 직접 손으로 익히는 체험이 가득한 '백제문화전당'에서 공주가 가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자.



『고마곰과 공주가 전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예요.
앞으로도 공주시의
새로운 명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감을 깨우는 백제 문화의 집약체

지난 2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중심에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백제문화전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아요. 전시와 공연, 체험을 중심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복합문화플랫폼' 이랍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1,500년 백제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마주하게 돼요. 유물이나 책 속에서만 보던 백제가 다채로운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새롭게 만나게 해준답니다.



저희와 함께
백제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1층

빛과 무대로
다시 살아나는 백제

살아 숨 쉬는
백제의 이야기를
층에서 경험해 보세요!



2층

만들고, 머물고,
산책하며
만나는 백제

백제문화전당 1층은 전시관 '비단뜰'과 공연장 '고마홀', 그리고 귀여운 굿즈가 가득한 '아트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공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가장 먼저 발길을 사로잡는 곳은 몰입형 전시 공간인 '비단뜰'이에요. 지금 이곳에선 개관 기념 전시인 '빛으로 잇는 시간, 백제'가 한창인데요. 거대한 LED 월과 커브드 스크린이 전시장 전체를 화려한 백제의 풍경으로 채우고 있답니다.

찰랑이는 금강의 물결을 표현한 '금강의 서사'부터 신비로운 '백제의 신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기술과 미래'까지. 어둠 속에서 빛과 영상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역사가 어느새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가올 거예요.



백제문화전당의 2층은 직접 만들고, 편히 쉬고, 가볍게 산책도 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공주가 품은 소중한 이야기를 체험으로 녹여낸 '무릉공방'입니다. 직조 공장으로 유명한 유구읍의 실걸을 잇는 직조 체험, 아름다운 도자 문화로 알려진 계룡산의 흙결을 느껴보는 도자 체험까지. 공주의 자부심이 여러분의 손끝을 거쳐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나만의 수호동물 만들기부터 3D펜으로 꾸미는 '무릉이' 열쇠고리, 세상에 하나뿐인 무릉이 접시, 그리고 공주의 자랑인 알밤을 활용한 인센스 홀더, 마그넷 만들기까지. 무릉공방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방문 전 백제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백제의 이야기를 눈으로 담았다면, 이제는 몸으로 느낄 차례예요. '고마홀'은 약 18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화려한 무대로 만나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설 공연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가득하답니다. 언제 방문하셔도 기대 이상의 전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백제문화전당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고 '아트숍'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세요! 특히 백제문화전당의 마스코트 '무름이' 굿즈는 절대 놓칠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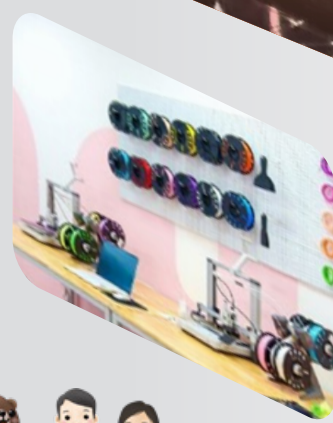
백제문화전당의 기념품들은 지역 예술가들의 섬세한 손길이 닿아 있어 더욱 특별해요. 단순히 사고파는 물건을 넘어, 소장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딱 좋은 디자인 작품이거든요. 백제의 정체성이 깃든 예쁜 굿즈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폭 빠져버리실 거예요!

공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탁 트인 야외로 나가 볼까요? 계절마다 색다른 행사가 열리는 '이벤트마당'과 공주의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걷기 좋은 '어울림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요. 카페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즐기고 나면, 백제문화전당에서의 하루가 기분 좋은 휴식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거예요.

이처럼 백제문화전당은 책이나 기록으로만 보던 과거를 박제해 두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 백제의 멋을 발견하고, 나만의 영감을 채워가는 일상 속 문화 거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으로 만나는 백제, 우리 백제문화전당에서 만나요!



혹시 내가 방문할 때는 어떤 공연이 열릴지 궁금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고마홀의 무대는 계절과 달마다 늘 새로운 서사로 채워질답니다.



무름이방 아트숍



무령왕의 62년 생애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4장_무령의 꿈

14화 백제 25대 임금이 되어

만화:최 현 정/ 대본 자료:무령왕국제네트워크

애당초 백가는 왕이 시해되면 바로 가림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겨가 도성을 장악하고자 했어. 그러나 그의 계획은 어그러졌어.

동성왕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고 웅진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이이!

뭐이야?

혹시 모를 백가의 난입에 대비해 웅진성은 도성의 방어를 강화하였어. 하지만 결국 왕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어.

하나뿐이었던 왕자마저 역병으로 이미 세상을 떴으니 누가 후사를 이을꼬?

왕의 혈육이라고는 가와치에 있는 동생들 뿐이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백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후사를 세워야 할텐데!

흠...

멀리 가와치에 있는 동생이 오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아! 유배 중에 있는 사마가 있지 않은가!

웁거니~ 사마라면 정치적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고 개로왕의 아들이니 후계자로 낙점일세!

무령왕은 동성왕 말년에 웅진 도성 부근에 대기하며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지.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더니! 딱이네~

이항~

고관 대신들의 합의에 의해 사마가 후사로 결정되었어. 사실 이들은 동성왕의 독단적 정치에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람들이었어.

사랑해요 사마왕

우유뺏갈 사마왕

사마왕 팬클럽

크~

금강변에 넓게 펼쳐진 겨울 갈대숲을 바라보며 사마는 때를 직감했어.



사마산 앞 금강변(우성면)

하지만 백가는 여전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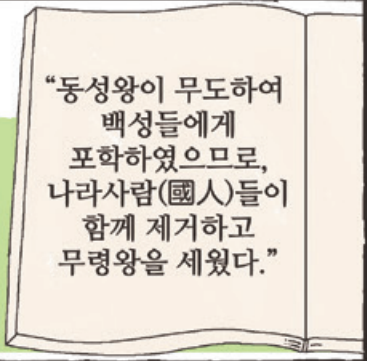


무령왕은 신중하고 다소 내성적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이었어. 무령왕은 단호했지.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장군들은 주저했어. 그래서 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림성을 함락시켜 백가를 사로잡은 후 그를 처단하여 백마강 강물에 던져버렸지.



동성왕이 살해되고 무령왕이 즉위한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백제신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MBTI(유형별 성격특징)-ISFJ (용감한 수호자)

백제신찬

봄이다, 당신이 오네
|
나태주

저만큼 오네
처음 보는 사람
그러나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

당신이 오네.

산성시장 골목 안, 오래된 간판을 따라 들어서면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파마 롤을 감은 채 마루에 누워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한명희 대표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머리를 하러 왔다가 친구가 되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 35년 동안 이웃을 가족으로 품어온 ‘현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서울 아가씨의 아무진 손길, 공주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운 피부와 환한 미소를 간직한 한명희 대표. 그는 예전부터 알아주는 소문난 멋쟁이였다. 20대 시절 서울에서 제약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꾸미는 걸 워낙 좋아했던 그에게 미용실은 가장 익숙하고 즐거운 놀이터였다.

“미용사는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공장 회사를 그만두고 미용실에서 보조일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가위 근처에도 못 가보고 매일 바닥을 쓸고, 손님 머리를 감겨주는 게 일과였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정한 손길로 다듬어 온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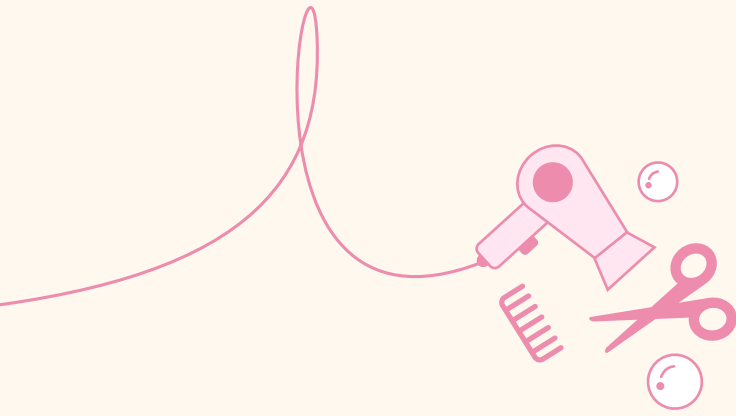
가위 소리가 머무는 동네 사랑방

현미용실

자격증을 딴 뒤에도 연습은 멈추지 않았다. 마네킹을 앞에 두고 밤낮없이 가위질을 하며 기술을 익혀 갔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인연을 따라 공주에 터를 잡았다. 유구에서 2년 정도 미용실을 운영한 뒤 지금의 자리에서 둘째 딸의 이름을 딴 ‘현 미용실’을 열었다.

“처음에는 ‘공주 스타일’을 몰라서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서울에서는 파마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처음엔 그렇게 해드리니까 손님들도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꼭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 파마가 다 풀렸다며 속상해하시더라고요.(웃음)”

농사짓고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공주 엄마들에게는 서울식 자연스러움보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꼭 잡아주는 ‘뽀글뽀글하고 짧은 머리’가 최고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대표는 공주 엄마들의 마음을 하나둘 읽어내며 산성시장 골목의 단골 미용실로 자리 잡았다.



**손님들과 함께 키운 삼남매,
 마음을 나누고 가족이 되다**

서울에서 신부화장과 업스타일 기술까지 제대로 익혀온 그의 솜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다. 가장 바빴던 40대 시절에는 아이를 업고 파마를 맡았고, 막내아들을 낳기 직전까지 배가 부른 채로 가위를 들었다. 하루 12명씩 파마를 해내던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 곁에는 늘 친정엄마 같은 손님들이 있었다.

“우리 삼남매는 손님들이 같이 키워준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바쁘니까 엄마들이 자기 손주 입히던 옷부터 기저귀, 젖병까지 주셨죠. 아이들이 교복을 입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얻어 입혀 키웠어요.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대표는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른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다 보니 이제는 피를 나는 가족보다 끈끈한 사이가 됐다. 아기를 낳았을 때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김치를 짭 찢어 입에 넣어주던 이웃들의 손길은 지금의 현 미용실을 있게 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의 헌신도 큰 힘이 됐다. 세살배기 막내를 업고 함께 출근길에 오르던 남편의 뒷모습은 35년 외길을 흔들림 없이 견게 한 버팀목이었다.

이제 현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매만지는 곳을 넘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고단한 몸을 누여가는 편안한 사랑방이다. 한 대표는 이곳에서 손님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며 이제는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가 됐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단골손님의 부고를 들으면 친정엄마를 잃은 듯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는 앞으로도 이 따뜻한 인연들이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한 ‘공주의 딸’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공주는 ‘양반의 고장’이라는 말처럼, 이곳 분들은 참정이 깊고 마음이 넉넉해요. 저에게 공주는 제2의 고향이자 전부입니다. 기력이 닿는 날까지 현 미용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단골들과 정답게 눈을 맞추며 가위를 드는 것이 제 남은 꿈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여전히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한 대표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35년 전 서울에서 온 낯선 아가씨는 이제 시장 골목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안방마님이 됐다. 경쾌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깊어지는 그의 미소는 오늘도 산성시장의 하루를 따스히 채우고 있다.



산성시장4길 102 | 041-856-3920



봄 향기 가득, 바삭한 즐거움 두릅튀김과 알밤묵볶이

완연한 봄에 접어드니 식탁 위에도 초록빛 봄나물이 하나들 등장한다. 그중 씹사름한 맛이 매력적인 두릅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반가운 손님이다. 특히 튀김으로 조리하면 특유의 향은 살리고 식감은 한결 부드러워져 누구나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매콤달콤하게 볶은 고소한 공주 알밤묵볶이를 곁들이면 색다른 별미가 완성된다. 바삭한 두릅튀김과 쫄깃한 알밤묵볶이로 차려낸 봄 한접시로 제철의 맛을 느껴보자.

재료 및 분량

알밤묵볶이 : 묵말랭이 120g, 양파 1/2개, 대파 1/2대, 당근 1/3개, 어묵 1장, 마늘 2개, 식용유 1큰술, 참기름 1/2큰술, 통깨 약간, 양념장 재료(고추장 1.5큰술, 고춧가루 1큰술, 진간장 1큰술, 물엿(올리고당)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물 150ml)

두릅튀김 : 두릅 200g, 반죽 재료(참쌀가루 100g, 감자전분 40g, 튀김가루 20g, 탄산수 160ml, 소금 약간), 튀김용 식용유

만드는 법



1

묵말랭이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양념장 재료는 미리 섞고 20분 정도 숙성시켜 고춧가루 풋내를 없앤다.



2

양파, 대파, 당근, 어묵은 묵말랭이 크기에 맞춰 썰고 마늘은 편으로 썬다. 알밤과 묵말랭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3

중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대파를 볶은 뒤 향이 올라오면 나머지 재료를 넣고 볶다가 양념장과 물을 더해 끓인다. 센불에서 졸이듯 볶아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



4

반죽 재료를 섞어 튀김반죽을 너무 되지 않게 묽은 농도로 맞춘다. 밀둥을 제거해 가시를 손질한 두릅에 튀김가루를 묻힌 뒤 반죽을 입힌다.



5

팬에 두릅이 잠길 만큼 기름을 붓고 170°C로 달군다. 두릅을 넣어 고르게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튀기면 완성이다.

도움 요리연구가 김정미

TIP 1 탄산수는 차갑게!

탄산수의 기포는 공기층을 만들어 튀김을 더욱 바삭하게 한다. 탄산수는 최대한 차갑게 보관하고, 사이다나 맥주로 대신할 수 있다. 튀김반죽에 식용유 1큰술을 더하면 향층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TIP 2 기름 온도는 나무젓가락으로!

기름 온도는 마른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2~3초 뒤 기포가 올라오면 튀김을 넣기 좋은 온도다. 튀김이 어느 정도 익으면 한번 건져 올렸다가 다시 튀기면 더욱 바삭하게 완성된다.

TIP 3 신선한 두릅 고르는 법!

진한 초록색을 띠고 연둣빛의 어린 새순이 올라온 두릅이 맛과 식감이 좋다. 표면은 매끈하고 가시가 적으며, 12~15cm 정도가 적당하다. 손 끝의 잎이 오므라든 것이 연하고 부드럽다.

건강상식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두릅의 힘

예로부터 봄 두릅은 ‘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봄나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삼보다 6배 많은 사포닌을 함유해 혈당조절과 피로회복을 돕는 건강 식재료로도 주목받는다. 두릅은 크게 땅속에서 자라는 땅두릅과 나무에서 나는 나무두릅으로 나뉘는데, 땅두릅은 줄기가 부드러워 생채나 무침으로 즐기고 나무두릅은 데치거나 튀김으로 활용된다. 따뜻한 성질의 두릅에 수분이 많은 묵을 곁들이면, 두릅의 씹살한 맛을 담백하게 잡아주어 맛의 균형은 물론 영양 공합까지 훌륭하다.



영어로 잇는 진심, 수요일 밤의 영어 동아리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제민천 인근 카페에 사람들이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 모인다. 제민천 영어 스터디 'JES(Jemin English Study)'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곳은 영어 실력을 겨루는 동아리이기보다 영어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자리에 가깝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영어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여 대화하고 웃는 사이, 모임은 어느새 영어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싹을 틔운다.

together





평가 대신 존중을, 서툼 대신 즐거움을 채우는 시간

2021년부터 시작된 영어 스터디 모임 JES는 제민천의 물결처럼 잔잔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이면 회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카페로 모여든다.

JES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다. 5년 전 공주로 이주한 박진서 회장은 영어로 편하게 소통할 곳을 찾다가 직접 이 스터디를 만들었다. 실력을 겨루기보다 영어를 내뱉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은 JES만의 특징이다.

유창하게 말을 주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경청하는 이도 있다. 그렇게 서로의 속도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간다. 회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영어는 결국 자신감이더라고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말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 이들의 주된 화두는 ‘영어 신문’이다. 한줄씩 문장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영어로 나눈다. 단어가 막히면 잠시 한국어를 섞기도 하지만, 대화의 흐름은 곧 다시 영어로 이어진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직접 입을 열어 보는 경험 그 자체다.

아는 단어로 천천히 말하다 보면 대화는 생각보다 매끄럽게 이어진다. 오히려 영어로 말할 때 소통이 더 편안해졌다는 회원들도 많다. 화려한 표현 대신 단순한 문장을 쓰다 보니 담백한 진심이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이다. 영어 공부를 넘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편하게 오가는 곳. 이것이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 다시 모이는 이유다.



박진서 회장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영어로 사람과 마을을 잇다

JES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이 모인다. 이들은 영어라는 공통의 언어로 한 자리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묻고,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스터디를 넘어 일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모임이 끝난 뒤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물론, 지역 축제나 행사를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 가운데에는 연고가 없는 공주에 내려와 정착했을 만큼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느낀 공주의 즐거움을 외국인 여행자와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활동의 시작점이 됐다.

그 결실 중 하나가 외국인을 위한 ‘영어 지도’다. 회원들이 발로 뛰며 찾아낸 숨은 명소와 골목길 코스를 영어로 정리해 만든 이 지도는, 낯선 공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공주를 방문할 때면, 회원들이 직접 영어로 마을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투어를 진행하며 공주의 얼굴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한다.

실력에 대한 부담 없이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이곳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라는 회원들의 따뜻한 권유에는 잘 맞으면 함께하고, 아니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남기면 그만이라는 여유가 담겨 있다. 그렇게 가볍게 내딛은 한걸음이 영어를 다시 일상 속으로 불러오는 작은 습관이 될 지도 모른다

제12기 공주시 SNS 서포터즈 이주민

고마열차와 시티투어로 공주 여행하기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

공주는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차 없이 '뚜벅이'로도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서는 여행객들의 편안하고 깊이 있는 여행을 돕기 위해 고마열차, 공주시티투어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 걱정 없이, 편하게 공주를 여행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공주 여행! 고마열차

공주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명소 중 한곳은 역시 공산성입니다. 바로 이 공산성에서 출발하는 '고마열차'는 귀여운 외관 덕분에 멀리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마열차는 공산성을 출발해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영돼 편리하게 공주의 주요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열차에서는 관광 해설도 들을 수 있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고마열차

운영기간 3월 ~ 11월 (토·일, 공휴일, 백제문화제 기간)

운영시간 10시 ~ 17시 (매시 정각 출발, 점심시간 제외)

탑승장소 공산성

이용요금 아동 1,000원, 군인·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

운영구간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고마나루술밭

문의 041-840-2264, 041-854-0607



백제 역사를 깊이 있게! 공주시티투어 버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버스는 '공주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공주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나, 자주 와보셨더라도 공주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버스입니다.

공주시티투어 버스는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각 유적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주시티투어 버스는 공주시청 외에 'KTX 공주역'에도 승차할 수 있어 기차로 공주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공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예약 잊지 마세요!

공주 시티투어버스

운영기간 3월 ~ 11월(토·일, 백제문화제 기간)

시티투어 코스

1코스(가족힐링) : 매주(토) 운영

- 마곡사, 국립공주박물관, 나태주꽃꽃문학관, 책공방북아트센터

2코스(역사문화) : 매주(일) 운영

-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국립공주박물관, 석장리 선사유적지, 우금치전적지

이용요금 입장료, 버스비 포함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

(가족힐링) 경로 5,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 성인 8,000원

(역사문화) 경로 8,000원, 청소년·어린이 8,000원, 성인 11,000원

문의 041-854-8810, 041-840-8383



공주시티투어 예약

제13기 공주시 SNS 서포터즈 임보름

공주 왕도심코스, 뚜벅이 여행으로 딱!



공주는 역사 유적이 먼저 떠오르지만,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기 좋은 왕도심 여행지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당일치기 코스가 됩니다. 이번 일정은 공주하숙마을에서 시작해 든든한 한끼를 책임지는 고가네칼국수, 그리고 바로 옆 자연미술관까지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모두 도보 이동이 가능해 뚜벅이 여행자에게도 부담 없는 코스입니다.

공주하숙마을은 과거 공주사범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하던 시절의 흔적을 보존한 공간입니다. 하숙방을 재현한 공간과 생활 소품들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가 하나의 전시이자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공주하숙마을은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숙집의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 추억을 회상할 수 있을 테고, 하숙집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공주하숙마을에서 제민천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고가네칼국수가 나옵니다. 공주 왕도심에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 온 곳으로, 여행 중 허기를 달래기에 제격인 식당입니다.

고가네칼국수 바로 옆에 자리한 자연미술관은 제민천 골목 여행의 숨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식당을 나와서 몇걸음 옮기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마치 골목 끝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연미술관의 마당은 작은 숲처럼 꾸며져 있으며, 곳곳에 자연을 소재로 한 오브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카페와 전시 공간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전시를 관람한 뒤 차 한잔으로 여행의 속도를 늦추기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쉼터 같은 장소입니다. 제민천을 따라 걸으며 쌓인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실내외 공간을 오가며 천천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공주 왕도심 여행에서 '머무는 시간'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공주 당일치기, 걷기 좋은 조합!

공주하숙마을에서 시작해 고가네칼국수에서 식사하고, 자연미술관에서 쉬어가는 이 코스는 역사, 일상, 휴식이 한번에 이어지는 구성이라 하루 일정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게다가 이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민천 길을 걷게 되는데요. 사실 제민천은 공주 뚜벅이 여행의 핵심이죠. 곳곳에 예쁜 카페와 독립서점도 많고, 둘러볼 만한 역사적인 장소도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맛집과 카페도 투어하고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와 예술적 감성까지 공주에서 맘껏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하숙마을

- 위 치 당간지주길 21(반죽동 253-3)
- 규 모 관리동 1동, 숙박동 3동
※ 입실 15:00, 퇴실 11:00
- 문 의 041-852-4747



공주 하숙마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 **신고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 **신고·납부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 ◆ **신고방법**
 -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서 신고·납부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문의** : 세무과 ☎ 041-840-8162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자 모집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과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6개월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 ◆ **모집기간** : 2026. 4. 20.(월) ~ 정원 총원 시까지
- ◆ **모집인원** : 300명
- ◆ **모집대상** :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공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 ◆ **제외대상** : 국민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 지원대상자
- ◆ **참여혜택** : 6개월 참여 완료자 건강관리기기 및 인센티브 제공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 **문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67, 3295, 3285

으뜸공주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공주시는 맛집 발굴·육성을 통한 외식업소 경쟁력 향상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으뜸공주맛집을 선정

- ◆ **사업명** : 2027년 으뜸공주맛집 선정(26년 맛집 63개소)
- ◆ **신청대상** : 1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제외
(신청) 영업주 본인이 신청서 작성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추천) 문자로 상호명, 위치, 음식명 표기해 발송 및 수신
※ 추천업소에 대한 맛집 심사 동의서 받아 지정심사 진행, 미동의 시 심사 제외
- ◆ **문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36

2026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 ◆ **신청기간**
 - 1차 2026. 3. 18.(수) ~ 5. 8.(금)
 - 2차 2026. 6. 22.(월) ~ 8. 7.(금)
- ◆ **참여자격**
 - 공주시민, 관내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영업소 임직원
- ◆ **사업유형** : 시정책형(주민생활밀착사업)
- ◆ **사업규모** : 12억원 (사업당 한도 2억원)
- ◆ **대상사업**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
-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1) 1부, (필요 시) 참고자료 등
- ◆ **제출방법** : ① 공주시청 누리집 신청서 다운로드 및 등록
② 주민e참여
③ 이메일 (kimhy0151@korea.kr)
④ 방문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⑤ 우편 (3255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
※ 위 방법 중 1가지로만 제출
- ◆ **문의** : 자치행정과 ☎ 041-840-8504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 ◆ **집중접수기간**
 - 2026. 3. 3.(화) ~ 5. 27.(수)
- ◆ **공모분야 및 규모**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50억원
 - ※ 도비 30% : 시군비70%
- ◆ **참여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
- ◆ **참여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①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 e-um.chungnam.go.kr
 - ② 이메일 (yaya2169@korea.kr)
 - ③ 우편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 이메일·우편접수는 집중접수 기간 마감 기한인
5. 27. 도착분까지 한함
- ◆ **문의** :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041-635-3608

공주시 도서관 독서마라톤 안내

책 1쪽을 2m로 환산해 자신이 도전한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규칙적이고 건강한 독서 습관을 기르는 범시민 독서 캠페인

- ◆ **대회기간** : 2026. 3. 1.(일) ~ 10. 31.(토)
- ◆ **신청기간** : 2026. 3. 1.(일) ~ 10. 15.(목)
- ◆ **대상도서** : 공주시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
 ※ 공주시적의도서관, 웅진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10개소, 시청 북카페, 이동도서관, 스마트무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 자동연계
- ◆ **신청방법**
 - ①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 로그인
 - ② 독서마라톤 바로가기 클릭
 - ③ 참가코스 선택 후 신청(완주증 수령도서관 선택)
 - ④ 독서기록 일지작성 : 초등생 30자 이상, 중등 이상 50자 이상
- ◆ **문의** : 공주시적의도서관 ☎ 041-840-8955



◆ 코스안내

코스명	별칭	독서량(1쪽=2m)	독서권 수 (300쪽 기준)
단거리	제민천	1,500(=3km)	5권
5km	무령왕릉과 왕릉원	2,500(=5km)	9권
10km	공산성	5,000(=10km)	17권
하프	마곡사	10,550(=21.1km)	35권
풀코스	계룡산	21,098(=42.195km)	71권

우체국 공익보험 3종 안내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
-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장
- 보험료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끝(1년간)
- 납입보험료 100% 환급

- ◆ **대표 보장내용(주계약)** : 유족위로금 2,000만원
 만기보험금 3년 만기 3만원, 1년 만기 1만원
 재해수술보험금 최대 100만원(5종 수술, 수술 1회당)
-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 ◆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아닌 세대원 가입 시 주민등록본 필요
 ※ 증명서류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별도 문의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 출산장려 공익보험
-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공익보험
- 보험료 전액 무료
- 우체국에서 보험료 전액을 공익재원으로 지원

- ◆ **보장내용** : 자녀 보장(주계약) :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원
 엄마(임신부) 보장(특약) : 임신 중독증(기간 포함) 진단보험금 10만원,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3만원

(무배당) 우체국 나르미안전보험

- 플랫폼경제 운송업종사자 전용보험
- 단 한번 보험료 납입으로 보장 가능(1년간)
- 교통재해 사고 집중 보장
- 보험료의 50%를 공익재원으로 지원

- ◆ **대표 보장내용(주계약)**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000만원
 교통재해 장애보험금 500만원(단, 최초 1회에 한함)
 교통재해 중대수술보험금 100만원(수술 1회당)
- ◆ **가입대상**
 1종(일반형) : 업무상 이륜자동차운전자를 제외한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
 2종(이륜자동차전용) :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제외)

- ◆ **문의**
 공주우체국 ☎ 041-851-2532, 2541

공주시 시민 기자 소식을 한눈에



이주영(반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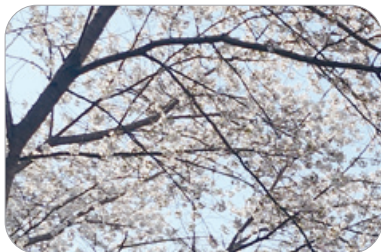
동학사 벚꽃길 올봄도 우리를 부른다

해마다 이맘때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연분홍 벚꽃 터널이 계룡산 자락에 화사하게 펼쳐진다.

반포면 학봉삼거리에서 옛 매표소까지 이어지는 길에서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2026 계룡산 벚꽃 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하며 공주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벚꽃길 곳곳에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무풍교 인근에서는 계룡산의 전통인 분청사기 물레 체험과 시연이 진행돼 전통 도자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한국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50% 할인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반가운 봄나들이 코스가 될 전망이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정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공주의 봄을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봄, 계룡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벚꽃의 계절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있다.



권효진(신관동)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봄 농사 행정, 농업e지가 달라졌다

"작년에 그 사업 신청하셨어요?" 농업인들 사이에서 봄마다 오가는 말이다. 농업 보조사업 대부분은 연 1회 신청이 원칙이라 한번 놓치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내가 신청 대상인지조차 모른 채 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농업e지'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농업인 전용 플랫폼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분석해 300여개 농식품부 지원사업 가운데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전국 농관원 130여개 사무소에서 전자펜 서명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이 낯선 어르신 농업인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는 키오스크도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체 관련 업무와 실시간 경락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행정 서비스를 '농업e지'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회들이 이제 스마트폰 화면 안에 모여 있다.



이미령(신풍면)

배움의 공간, 교실 넘어 마을로... 공주 마을교사, 뜨거운 성장 연수 현장

승지관은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6 공주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성장 연수'를 위해 모인 94명의 마을교사가 뿜어내는 학구열 때문이다.

마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생생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는 마음에 메모하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아이들의 삶과 배움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현장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이번 연수의 화두는 단연 '공주형 특색 교육'이었다. 참가자들은 교과 과정과 연계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고민하며, 마을 전체를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비법을 공유했다. 특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가동'시키는 동기유발 교수법과 학생 눈높이에 맞춘 '일상 언어' 소통 전략이 소개될 때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마을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과 교육 철학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 거듭나기 위한 내실을 기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마을교사는 "동료들과 열정을 나누니 에너지가 솟는다"며 "아이들에게 더 즐겁고 유익한 배움을 선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94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낸 이번 연수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주 교육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양숙(반포면)

105년 역사의 반포초,
다시 생각하는 모교의 내일

개교 105년을 맞은 반포초등학교 강당에 나이 팔순의 선배부터 까마득한 후배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제31차 총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반포초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문을 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초등학교들을 길러낸 지역 교육의 산실이다.

2021년에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 사도 펴내며 학교의 긴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다.

칠순회를 함께한 41회 졸업생들도 동창회 한켠에 옹기종기 모여 수다가 한창이다.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서 '결석 대장'이란 별명이 붙었다는 한 어르신은 "난 졸업하는게 미안했어.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많다 보니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는데 그때도 동생을 업고 있었다"며 "선생님을 보곤 괜히 창피해서 동네를 한바퀴 돌다가, 선생님 가신 뒤에야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이처럼 수많은 졸업생들의 학창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반포초등학교.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졸업생은 7명, 입학생은 단 2명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셈이다.

105년을 이어온 학교가 앞으로 지역과 함께 숨쉬기 위해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볼 때다.



이상덕(월송동)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사업 착공식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이 지난 3월 5일 동현동 산 1-1번지 사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공주시가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세종시와 인접한 13만㎡ 부지(약 4만평)에 조성된다. 이곳은 공공기관 유치 부지로 활용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주시 동부 권역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서세종 나들목(IC)과 인접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하며,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개통을 앞둔 공주~세종 광역 간 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은 동현지구의 교통 편의성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준공 예정인 동현지구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가공협회가 입주할 예정이며 연간 약 4만명의 방문객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중심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규(정안면)

석송초등학교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선정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석송초등학교(교장 이승재)가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우리 학생의 미래에 세계의 창을 열어주는 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현판식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IB 월드스쿨의 교육과정과 비전,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인증은 세종과 대전을 포함한 충남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최초의 IB 월드스쿨 인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석송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석송 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는 현판식의 분위기를 한껏 더 높여줬으며, IB 교육과정 도입 경과보고와 교육공동체 선언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승재 교장은 "충남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들 한명 한명의 성장을 중심으로 탐구와 성찰, 실천이 살아 있는 교육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배움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석송초는 1949년 제헌국회의원 신방현님의 토지 기부로 개교한 이래 수많은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8차 정례회 개최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지난 2월 25일 신관동 행복누리에서 제13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공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38차 정례회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한 공주시의원들과 15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시청 ▲김경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과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의 환영사 ▲안건 심의·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제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주에서 정례회를 개최해서 의미가 깊다”며 “오늘 정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충남 15개 시군의 발전적인 논의와 서로 협력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주시를 방문해 주신 충남 시·군의회 의장님들을 환영한다”며 “충청남도과 각 시·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65회 임시회 개최 ”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8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18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23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새롭게 출발하는 달 3월에 공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언제나처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으로 보는 제265회 임시회 ”

제1차 본회의 임시회 개최 (3.16.)



의회운영위원회 심의(3.17.)



행정복지위원회 심의(3.18.)



산업건설위원회 심의(3.19.)



한국의 채색화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소망, 삶의 가치를 색으로 담아낸 그림이다. '조선, 그림을 읽다' 코너에서는 계절에 어울리는 조선시대 채색화를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 편집자주

花鳥圖

화조도

새봄, 생명의 시작을 알리다

겨울의 여백 위로 가장 먼저 시간을 여는 것은 매화다. 잎보다 먼저 드러난 마른 가지 끝에 연분홍과 붉은 기운을 머금은 꽃송이가 조용히 번져 있다. 아직 완전한 봄이라 하기에는 이른 순간, 설한을 통과한 흔적을 간직한 채 피어난 매화는 계절의 문 앞에 서서 새로운 시간을 예고한다. 색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과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조선의 화가들은 이 절제된 생명의 찰나를 화조도(花鳥圖) 속에 즐겨 담았다.

여덟쪽으로 이어진 화면에서 매화가 계절의 문을 열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뒤이어 꽃잎을 풍성하게 벌린다. 설한을 건넌 매화가 '시작'이라면, 모란은 그 시작 위로 펼쳐지는 '시간'이다. 꽃은 이렇게 화면의 앞자리에서 봄을 차곡차곡 완성해 간다.

꽃 아래로는 푸른 괴석의 생명력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그 위로 평 한쌍이 힘차게 괴석의 흐름에 따라 조화롭게 자리한다. 길게 뻗은 꼬리깃과 선명한 빛깔이 시선을 위로 이끌며 화면에 상승의 기운을 더한다. 특히 수컷 평의 화려한 깃은 솟아오르는 생명의 양기를 상징한다. 매화가 열어둔 계절 위에서 생명의 기세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장지연 작가

-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13회, 국내외 아트페어 및 기획·단체전 다수 참여
- 2024 공주그림상점으로 아카이브 선정 작가
- 2024 한국예총세종특별자치연회 세종예술인상 수상



시선을 조금 낮추면 물가에는 원앙 한쌍이 나란히 떠 있다. 잔잔한 수면 위에 겹쳐진 존재는 고요한 안정감을 전한다. 원앙은 화합과 금슬을 상징한다. 봄은 단지 피어남의 계절에 머물지 않고,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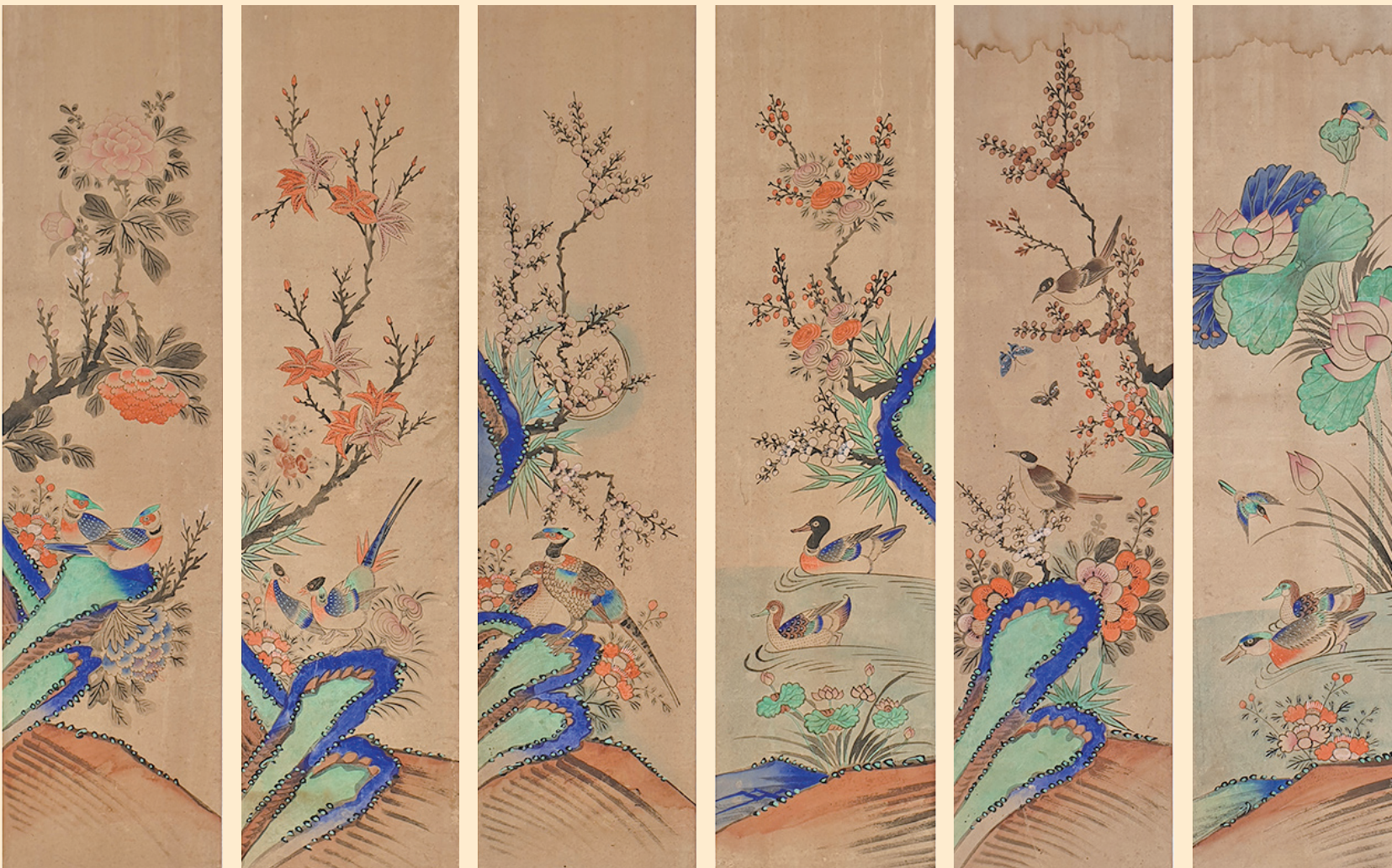
화면 한쪽, 풀섶 사이에는 토끼가 몸을 낮춘 채 자리를 잡고 있다. 예로부터 다산과 번성을 의미해온 토끼는 이 화조도의 서사를 미래로 확장한다. 피어나는 꽃과 날아오르는 새, 짝을 이루는 물새 곁에서 토끼는 봄이 현재의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생명의 약속임을 암시한다.

화조도는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다. 매화는 계절을 열고,

모란은 풍요를 더하며, 꿩은 생명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원앙은 화합을 이루며, 토끼는 다산의 의미를 완성한다. 고요한 화면 안에는 삶의 평안을 기원하는 인간의 염원이 겹겹이 스며 있다.

금강을 굽어보는 공산성의 봄도 이와 닮아있다. 오래된 성벽 위로 매화와 봄꽃이 피어나고, 성곽의 곡선을 따라 바람이 흐르며 강물은 묵묵히 시간을 이어간다. 천년의 시간 위에 다시 피어나는 꽃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화조도는 그래서 4월의 '봄'과 닮아있다. 피어남에서 시작해 솟아오르고, 어우러지며 다시 이어진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시작의 의미를 마주한다.



화조도(花鳥圖), 조선시대, 종이에 채색, 31×128cm, 소장품번호 화조(1)63. 이미지 출처: e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 통합문화재DB)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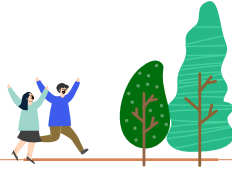
1 2 3 4



4. 3.(금) 10:30, 4. 4.(토) 14:00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과 요술램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4. 4.(토)
양상블 루네
<파리, 벨 에포크>
바드챔버하우스 아트홀



5

6

7

8

9

10

11

~ 4. 5.(일)
소피의 첫 개인전
<생을 잇다>
이미정갤러리

4. 7.(화) ~ 13.(월)
윤상원 개인전
이미정갤러리

4. 9.(목) 19:00
공주시합창단
<PASTORALE>
바드챔버하우스 아트홀

4. 10.(금) 15:00
바드 인사이트
인문학 시리즈
<상식으로 보는 미국 통사>
바드챔버하우스 아트홀



4. 9.(목) 19:30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신춘음악회
<공주, 화음으로 피어나다>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4. 11.(토) 14:00
아트토크콘서트 I
<소리꾼 이자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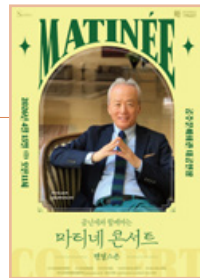
15

16

17

4. 14.(화) ~ 20.(월)
이승욱 개인전
이미정갤러리

4. 15.(수) 11:00
마티네 콘서트 I
<멘델스존>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4. 17.(금) 19:30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26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19

20

21

23

24

25

4. 24.(금) 19:30
연극
<나와 할아버지>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26

27

28

29

30

공주시문예회관 041-852-0858 바드챔버하우스 041-841-2224 이미정갤러리 041-854-5345

공연 및 전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제18회 공주석장리 구석기축제

Gongju Seokjangni
Paleolithic Festival

석장리, 선사로 떠나는 시간여행



2026
5.2. ^토
-
5.5. ^화

공주석장리박물관 일원

주최 |  공주시
GONGJU CITY

주관 |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33 SNS

따뜻한 기부 소식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현황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73		복지정책과 041-840-8792	
2026년 2월 기부금 총액 12,932,000 원 / 138명 <small>2026년 1~2월 기부금 총액 24,035,700원</small>		2026년 2월 기부금 총액(현금, 현물) 492,925,112 원 / 4건 <small>* 총 금액은 각 읍면동 특별 모금(현금·현물)을 합산</small>	
기부자 ✔ 2026년 고액기부자 문은수 ※ 기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금 4,200,000 원 / 4건 큰샘교회, 김우진, 신동균, 조병규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 민간플랫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현물 13,392,300 원 / 12건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뚜레쥬르 공주신관점, 지월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국일에프앤비, 계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명환, (주)미래로복스, 풍년농약사, 탑할인마트, 한국부인회, 부자떡집	
기부 혜택 ✔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지역의 답례품 제공 • 고맛나루쌀, 공주밤, 알밤한우, 공주페이 등			
기금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 (지정기부) 관내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기부금 현황		
교육체육과 041-840-8643		
2026년 2월 기부금 총액 57건 / 933,760 원 <small>2026년 1~2월 기부금 총액 4,812,760원</small>	일반 13건 / 490,000 원 개인 이용복, 나태주, 김경미, 이재권, 김정섭, 박상현, 이찬, 김학도, 오재경, 임영미, 이지영, 서건석, 신영각	공무원 44건 / 443,760 원

온누리공주시민제도

온누리공주는 **공주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공주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누리공주 를 검색하세요!



온누리공주시민 특별한 혜택

마일리지 공주페이 전환 또는 고맛나루장터 사용(정회원 가입 시 5,000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 **쏘카 할인** (대여요금 50% 할인 / 공주시 내 쏘카존 이용 시) - 온누리공주 쿠폰함 쿠폰번호 확인 ▶ 쏘카 내쿠폰 쿠폰번호 등록



왕과 사는 남자

그 이야기의 흔적을 공주에서 만나다



최근 극장가에 뜨거운 눈물 바람이 불고 있다.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이홍위)과 그를 끝까지 지켰던 충신(엄홍도)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열두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숙부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유배길에 오른 소년 왕, 그리고 운명처럼 그를 맞이하게 된 총장 엄홍도의 관계를 그린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이야기가 공주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당시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홍도는 목숨은 물론 가문의 운명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영월 자신의 선산에 장례를 치렀다.

이 일로 보복을 피해 정든 영월을 떠나야 했던 엄홍도는 식솔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몸을 숨긴 곳이 바로 공주 계룡산 자락이었다고 한다.

그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동학사로 향해 생육신 가운데

한사람인 김시습과 함께 단을 쌓고 초혼제를 올리며 단종의 넋을 위로했다.

동학사 숙모전에서는 지금도 음력 10월 24일이면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서 생을 마감한 날을 기리는 제향(동향)이 이어진다. 또한, 숙모전에는 단종과 엄홍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숙모전은 단순히 왕의 위패만 모신 공간이 아니다. 정전에는 단종과 왕비 정순왕후의 위패가, 동무와 서무에는 엄홍도와 김시습을 비롯해 사육신·생육신 등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350명의 충신이 함께 모셔져 있다.

특히 이곳에는 이름 없는 하급 관리와 노비들까지 신분의 구분 없이 함께 모셔져 있다. 어린 왕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신분을 넘어 하나로 이어져 온 셈이다.

어쩌면 영화 속에서 엄홍도가 왕을 '골칫덩이 유배자'가 아닌 '지켜야 할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마음 역시,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이 보여준 충절에서 비롯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동학사 숙모전 전경



동학사 숙모전에서 제향을 지내는 풍경

공주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추억 속 공주말을
문제로 만나봅니다!

공주말 학력고사

Q. 다음 중 '곽슨생'이라 부르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 잘하면 뭐야. 사람이 '곽슨생(곽선생)'인데~"

1.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람.
2.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3. 괜히 잘난척하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
4. 앞뒤가 팍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Q. 내가 알고 있는 공주 사투리,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 [예시] 매시랍다 - 저희 할머니가 즐겨 쓰시는 말이에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울 때' 이것 참 매시랍네~라고 하신답니다.

Q. 다음 중 '조개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1. 조금 2. 소개 3. 조건 4. 조각

해당 문제는 '공주말사전'(이걸재 위음)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출 기한

4월 10일(금)까지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
거주 지역(도시명)을 함께 적어주세요.



아이에게는 창의력을
어른에게는 힐링을 전하는 색칠 시간

버블빅으로 채우는
공주의 봄

당신에게 인상깊었던
공주의 벚꽃 명소는 어디인가요?



정성껏 색칠한 그림과 함께 나만의 봄나들이 추억을 짧은 글로 들려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다음 호 '흥미진진 공주'에 게재되며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dnc-hq04@naver.com

※ 메일 본문에 성함, 연락처, 거주지역 (도시명), 사연을 함께 적어주세요.

응모 기한 **4월 10일(금)까지**